

내일을 준비하는 **동탄**이 당신을 배놓지 않도록.  
동탄 주민들께 올리는 글.



사랑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제 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동탄에서 시작한 이후, 동탄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많이도 뛰어다녔습니다. 광비콜과 문디벨, 신주거까지.. 지역에서 통용되는 표현이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동탄대로의 신호가 조금 더 잘 연동되어서 작동하기를 바라고, 광역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왜 최고속도로 달리지 않는지 답답해하며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 조성된 계획도시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외곽되게도 동탄의 앞에는 희망과 함께 위기와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숲의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보면 정치가 풀어야 할 일이 참 많은 동네가 바로 동탄이라고 느낍니다.

동탄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동탄이 지금 성장과 도약을 멈춘다면 다른 2기 신도시들과 같이 베드타운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휴전선에 막힌 파주 운정 신도시나 서해로 막힌 김포 한강 신도시에 비해 동서남북으로 열려있는 우리 동탄 신도시는 경기 남부의 교통 허브, 교육 허브, 그리고 문화-예술-의료 허브가 되어야 자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 동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동탄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준석이 동탄의 국회의원인 것이 시민 여러분의 자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이준석 올림



동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구체적인 공약들을 풀어놓기 전에,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의 현실이 시궁창이라 하더라도, 동탄의 미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치의 영권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라면 환멸을 느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말하는 공허한 구호보다는 제가 스물일곱 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정치원로가 저에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중영합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고독하더라도 용기있는 리더가 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원로의 사려깊은 말씀대로 정치하고자 애썼습니다. 정치꾼이 아니라 영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높여 할 말 하고 그에 따른 가혹한 정치적 탄압도 생생히 겪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낙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 꼴 당하기 두려워 권력에 굴종하는구나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났지만 여전히 저의 행보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에 과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사실 지난 2022년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정치에 대해 큰 회의감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당대표로 지휘해서 이긴 선거들이지만, 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적 과제들을 다루었고 해결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

그 두 번의 선거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누가 더 나쁜지를 가리는 치킨게임처럼 치러졌습니다. 미세한 표차로 승자와 패자는 갈렸지만 국민께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경제 공약, 저출산 공약, 교육 공약이 무엇이었던지 기억나시는지요.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재명 두 선택지를 둔 킬러문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두 정치인과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 시절 권력을 얻고 감투를 쓰는 복마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화를 표방하는 정당이지만, 산업화와 아무 관계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믿음이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실물경제를 경험했고, 허황된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는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탐욕만 남은 정치집단입니다.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라면 사슴이 말이 되고 솔뚜껑이 자라가 되고 바이든이 날리면이 됩니다. 영부인의 패션쇼와 화보집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흠뻑러지고, 알 수 없는 도사와 법사들이 팔도를 휘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화를 표방하는 정당이지만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절대적 충성을 하지 않은 이에게는 어김없이 강성 지지층의 린치가 벌어지고 당의 공천 불이익이 가해 집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서슴지 않으며 '묻지마 정권심판'만 외치니 국민께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막 나갈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서로가 서로의 선대위원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 모두 누구를 지키기 위한 방탄,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한 특검을 놓고 2년 내내 비생산적인 다툼을 해왔던 이유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지독하게 비겁했던 두 사람을 매섭게 심판할 시간입니다. 동탄 시민께서 이 의미 없는 경쟁에 확실한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이 정치의 광장에서 당장 퇴장하라는 강력한 레드카드를 날려주셨으면 합니다.

동탄 시민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동탄의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시민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자에 줄 서지 않아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표가 여기 동탄 시민들의 손에 있습니다. 관성에 따라 동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리 사람을 집단으로 진땀아도, 국민은 포로써 그 사람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선명한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는 분명한 표상을 남겨주십시오.

동탄 주민께서 이준석에게 주시는 한 표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심판의 한 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동탄 시민들의 한 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가장 용기있고 특별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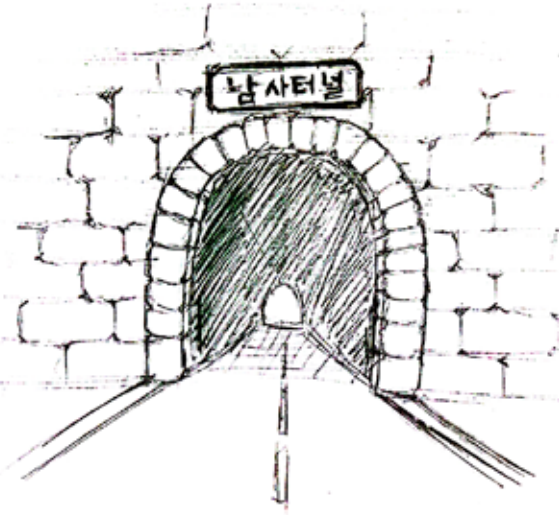


이제 동탄의 획기적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단면 교통입니다.

신도시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통입니다. 동탄의 교통은 세로축인 서울 방향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GTX/SRT가 확충되어 서울 강남 진입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하지만 주변 도시 및 동탄·신도시와 연계되는 가로축 교통망은 아직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교통망의 확충은 배산 신주거 문화타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탄·신도시 전체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이미 신주거 문화타운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지만 동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어 차량이 신리천로를 따라 산척동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극심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신동에서 용인 남사까지 이어지는 신동-**남사터널**의 신속한 추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동탄에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길은 단지 교통의 문제를 넘어 동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동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기흥IC까지 올라가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동탄대로는 그 길이에 비해 신호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에 남동탄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동탄 분기점 인근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남동탄 IC**의 신설이 시급합니다. 조속한 남동탄 IC의 신설로 남동탄에서 기흥IC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며 사용되는 하루 1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로 위에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트램의 조기 완공과 추가적으로 남사로 이어지는 **트램 3호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동탄-인덕원선, 서동탄에서 동탄역으로 1호선 연장, 동탄부발선(반도체라인), 분당선 연장(호수공원역 신설), 청주공항으로의 수도권 내륙선(목동역, 신동역), GTX 삼성역까지 조기 개통 등 기 계획된 철도 공약과 함께 동탄을 철도와 도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 최대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동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은 상속세 없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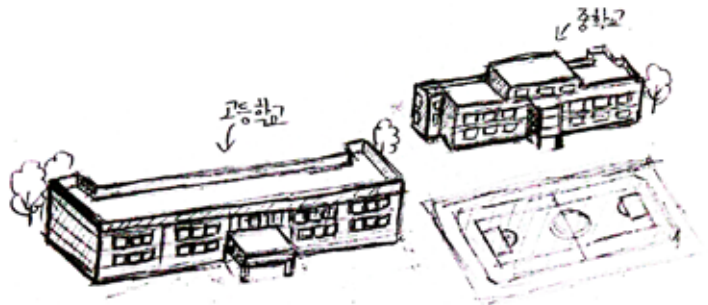
교육에 이념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있는 제도나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월성 교육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오랜 기간 교육 행정을 하면서 영재교육기관인 과학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설치 등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60만 명이 사는 경상북도에는 2개의 과학고가 있지만, 1,360만 명이 사는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은 8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이공계 쪽에서 많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학생들만 영재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최대 4개까지의 **과학고등학교** 추가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를 동탄 지역에 유치하여 서울 못지않은 영재교육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예술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술고등학교**의 유치도 필요합니다. 과학과 예술 분야의 재능있는 동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아서 동탄을 떠나야 한다면 동탄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기도 전역에서 동탄의 좋은 교육 환경을 보고 좋은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일찍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도 유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식화된 직업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강요받고 청춘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동탄에 특성화고를 유치하고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특성화고로 만들겠습니다. 다채로운 꿈을 가진 학생들이 넘실대는 동탄,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학교 학생들에게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면 높은 확률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고소득 직종이나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교사, 한때는 프로게이머, 최근에는 아이돌과 유튜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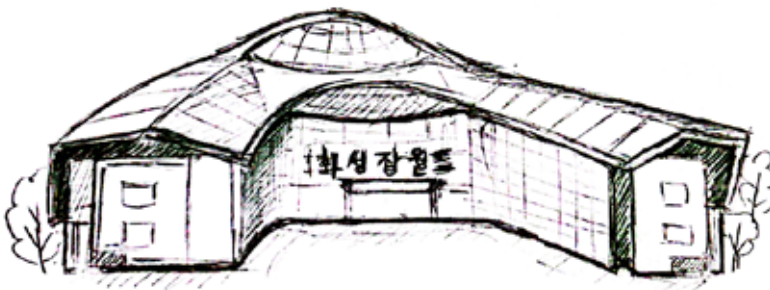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진로 교육을 하기도 어렵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에는 직업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알아야 꿈도 꺾입니다. 모르면 가던 길로만 갑니다.

저는 성남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를 동탄에 유치할 것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전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높고 학생 수가 폭발하는 동탄이 아니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잡월드'는 수도권 유일, 분당에서 많은 주민들께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제 '동탄 잡월드'가 여기 화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주민들께도 널리 사랑받는 교육 문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경기 남부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더 이상 국민 삶의 부차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께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영역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가 곧 민생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복합용지에 만들 **문화복합센터** 공약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사동팔달 교통과 한 차원 높아질 교육, 그 다음 동탄의 과제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꽃피우는 도시야말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장, 나아가 도서관과 야외공연장이 어우러진 문화복합센터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탄의 역동성에 윤기를 더할 것입니다. 매일 낮밤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도서관을 드나드는 풍경은 우리가 꿈꿔왔던 풍요로운 도시의 단면일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동탄이 경기 남부의 허브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기관의 유치도 필수입니다. 특히 용인에 세브란스 병원이 큰 규모로 확대 오픈하면서 동탄 지역에 좋은 대학병원 유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되던 대학병원 유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계 순위권의 설비를 보유한 **국립암센터의** 유치를 공약하고 싶습니다.

고양시 일산에는 국립암센터가 운영되어 현재 국민 사망률 1위인 암의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암병원은 연세 암병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입자 치료기 등 고가의 우수한 장비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SRT가 경부선과 호남선 뿐 아니라 전라선, 동해선에도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사통팔달로 2시간이면 동탄역에 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2 국립암센터의 유치에 있어서 교통 편의성은 매우 중요한 비교우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2 국립암센터 유치로 동탄 주민들과 국민의 암진단, 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인구가 많은 동탄에서 어린이 병원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율이 높고 아이가 가장 많은 동탄이야말로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 어린이병원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동탄2신도시에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공약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온 세상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말씀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동탄 시민들께서 아이가 아플 때, 또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수원으로 용인으로 수십 분씩 이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은 신도시의 아이들이 분초를 다투며 아픔을 참지 않아도 되는 화성시 꼭 만들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세심한 배려와 간병은 오래도록 깊은 잔상을 남깁니다. 정치가 시민들께 그런 따뜻함을 드릴 수 있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공천된 이주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함께 동탄 주민들이 최고 수준의 어린이병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이준석이 드리는 약속!

## • 사통팔달 동탄 교통

- ☑ 남동탄IC 설치: 남동탄 주민들이 기흥IC까지 올라가야 하는 문제 해결
- ☑ 남사터널 설치: 용인 남사 반도체 단지과 동탄 신동 신주개간지를 연결해 동반성장
- ☑ 신리IC, 중리IC 진출입로 개선: 만성적 교통 정체 해소
- ☑ 분당선 동탄 연장 및 분당선 호수공원역 설치
- ☑ 동탄2신도시 신호체계 전면 개혁: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만성 교통 정체 해소
- ☑ 비동학시간 30km 제한 해체: 등하교 외 시간은 속도 제한 완화
- ☑ GTX-A 정가권 도입: 정가권 도입으로 편도 4,450원 교통비 부담 경감
- ☑ 동탄발 SRT 추진: 부족한 선로용량 문제 해결하여 동탄 주민의 이동편의 극대화
- ☑ 동탄 트램, 동탄-인덕원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동탄-부발선 적기 개통



## • 대한민국이 투자하는 동탄 교육

- ☑ 동탄 과학고와 예술고 설치
- ☑ 왕배중학교, 아인중학교(가) 신설: 학교 과밀 해결
- ☑ 동탄 교육특화지구 지정: 특별법 제정으로 동탄의 첨단 산업 여건을 교육환경에 활용
- ☑ 수학교육 귀책임제 시범 실시: 동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상승 도모
- ☑ 통학 시간대 전용 순환 버스 운영: 라이딩 부담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 통학권 증대
- ☑ 권역별 청소년 콤플렉스 센터 건립: 창의력 넘치는 동탄 아이들 되도록
- ☑ 동탄2신도시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더 이상 오산교육지원청이 동탄을 관할하지 않도록
- ☑ 권역거점돌봄센터 설치: 방과 후 사교육 말고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설치

## • 문화가 넘실대는 동탄

- 동탄 잡월드 설치: 수도권 유일 국립직업체험관 분당 잡월드 동탄에 유치
- 동탄역앞 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아르떼 뮤지엄)
- 종합경기타운 건립: 축구, 테니스장 빌리러 멀리 가지 않도록
-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공원 '굿모닝파크'(가) 개발: 동탄 한가운데에 울창한 숲터를
- 호수공원 옆 국제규격 수영장 신설: 동탄 시민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 동탄호수-여울공원-자라외 공원 특성화 축제 및 둘러길 개발:   
신명 나는 동탄을 만듭니다
- 고교 스포츠 리그전 활성화:   
스포츠 속에 꽃피는 우리 아이들의 리더십과 팔로우십
- 카라반 캠핑장 및 글램핑장과 피크닉 존 조성:   
동탄 시민들의 '불멍'할 권리



## • 건강한 동탄, 따뜻한 동탄

- 24시간 소아 어린이병원 신설:   
아이 많은 동탄에 필수,  
경기 남부 권역 최대 규모 어린이병원
- 국립 동탄 알센터와 함께 K대학병원 신설:   
동탄을 의료 완판 도시로
- 동탄구청 신설:   
출장소로는 감당할 수 없는 100만 도시의 행정 수요, 평계말고 즉각 설치
-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유치: 현재 동탄에 2곳 + 알파
- 문화공연장 '트라이얼파크' 업그레이드: 오페라하우스 급 공연장으로
- 화성시립미술관 및 공공청사부지 평생교육문화원(가) 조속 건립 추진

이번 총선에서 가장 값진 한 표는  
동탄의 한 표, 이준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심판할 수 있는 한 표.

이재명 대표의 큰 승리를 저지할 수 있는 한 표.

동탄의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 한 표.

이준석 7